



THE GOSPEL NEWS

제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 데살로니가전서 5:18 )



2016 년 부활절 설교

“부활의 희망”

고린도전서 15:20~26

조영철목사 ( 오사카북부교회, 총회 서기 )



2016 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섬기는 교회와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 많은 신앙과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만의 독특한 특징을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부활'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부활' 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의 장”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른바 “부활의 증인이 많이 있다” 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양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 고전 15:14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고전 15:17 ).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선교도 헛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죄의 노예로 생활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입니다. 더불어 기독교 신앙은 어둠과 사망을 이긴 부활과 생명의 믿음이고, 절망을 극복 희망의 신앙입니다

2016 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 계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 에 대해 확인 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됩니까?

1. 예수님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20 절 )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 지라도 언젠가 다시 살아 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으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의 희망이 주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해 주셔서 죽어가는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 21-22 절 참조 ).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로마 5:18 ) 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부활에 의한 새로운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입니다” ( 요일 2:25 ).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 지는 것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3.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희망 ( 복음, Good News ) 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가족도 구원을 얻으리라” ( 행 16:31 ).

여기서 '구원' 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구원 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영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축복과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부디 2016 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희망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생활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사랑할 때 민족 차별이 없는 평화가 실현된다

## < 기고 >

### 한일, 북일 화해와 교류를 위해 '문화 센터 아리랑' 건설에 협력 해 주세요!

송부자 명예장로 (카와사키교회, 문화센터 아리랑 부이사장)

저는 제일 한국인 2세이며 4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 (현재 75세)입니다. 31세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까지 “췌센진”이라는 이지메를 당해서 자살 시도와 미수를 반복했으며,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 (故) 이인하 목사님으로부터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은 다음날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 집에 있던 보석들과 키모노를 처분하여 역사 책을 사고 민족차별 철폐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진실된 역사를 전하는 역사관 (史館)이 전무함을 알고 깜짝 놀라서 “1인극 (一人劇)”이라는 방법으로 “전쟁 기념관을 건설하자!”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무대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1년에 동포와 시민들이 “고려박물관을 만드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극에서 모금된 115만엔 전액을 기부하고 임원으로 봉사하여, 3년 동안 600만엔이 모금되어, 2001년에는 역사관을 개관하여 6년간 초대 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2012년 아베 정권은 교육 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위헌인 “전쟁 3법”이 성립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헤이트 스피치를 통하여 전국에서 “조선인, 한국인을 죽여라!”고 외치면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본 사회는 존엄한 생명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교육과 사회의 현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도 “문화센터 아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화센터 아리랑은 2009년에 新宿区大久保에 있는 8층 (56평) 빌딩으로 이전한 곳에 있습니다. 5만 5000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필요한 한국과 일본 조선 관련 근현대가 중심입니다.

또한 현재는 도서 열람과 “역사 연속강좌” (매월 1회), 강덕상 관장의 “강세미나” (근현대 한일관계사, 주 1회), “차별과 폭력을 생각하는 모임”, “비디오 상영”, “한글 그림책 읽기 모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목적은 재일 코리언과 일본인이 서로 만나 진실된 역사를 배워 자기를 회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민족 차별이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랑과 저의 꿈은 장서와 사료 (史料) 들을 한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역사관도 병설되는데 예산은 2억엔 정도입니다.



현재 회원은 500명 이상인데,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1년에 1만원의 회비이지만 하루에 28엔입니다. 돈의 사용법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은 회원이 되셔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일본 나라를 사랑할 때, 민족 차별이 없는 평화와 정의가 만들어 집니다.

우리 모두 아리랑을 건설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넓고 깊은 사랑을 믿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NPO 법인 문화 센터 아리랑  
이사장 김용두  
(와카바안과병원회장)  
관 장 강덕상  
(시가현립대학 명예교수)

東京都新宿区大久保 1-12-1 第二韓国広場ビル 8階  
TEL 03-5272-5141, FAX 03-3232-0090

Mail : [info@arirang.or.jp](mailto:info@arirang.or.jp)

- 회비 : 찬조 회원, 정회원 : 1만엔,  
매월 유지회원 : 3천엔, 5천엔, 1만엔
- 휴관일 : 월요일, 화요일
- 郵便振替 : 00160-9-651648  
特定非営利活動法人文化センター・アリラン

※지면상 요약문만 게재합니다.

기고 전문은 총회 홈 페이지에 있습니다.

### <세계개혁신공동체 WCRC>

#### 동북아시아부회 총회

2월 1일 (월)~3일 (수), 세계개혁신공동체 (WCRC) 동북아시아부회 (NEAAC) 총회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변혁과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 총회에서는 김성제총회장, 김병호총간사, 한국에서 유학중인 이상훈목사가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장윤재교수 (이화여대)의 기조강연, 김성제목사의 성서연구, WCRC 및 가맹교단의 보고에 이어서 전체회의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종교개혁: 기독교의 변혁과 무지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기조강연에서는 환경과파가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위협 수위에 도달한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하여 인간 중심적인 이해를 포기하고 새로운 종교개혁에 의한 변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적대감을 넘어 환대로: 순례자 아브라함과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의 성서연구에서 김성제목사는 “하나님이 기류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사명은 적대감으로 가득찬 세계에 환대감을 가지게 하였다”고 말했다.

보고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되는 WCRC 총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KCCJ에서는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설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체회의에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NEAAC 임원의 직무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작업부를 설치할 것이 결정되었다. 부원으로는 김성제목사가 선출되었다.

지금까지 일본, 한국, 대만 순으로 임원 (회장, 서기, 회계)을 담당해 왔는데, 새롭게 중화기독교교회 홍콩구회 (HKCCCC)가 함께 하게 됨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순으로 임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음 임원은 홍콩이 담당하게 된다.

(보고: 이상훈목사)

### <한일 5 교단 선교 실무자 회의>

#### 선교사 파송과 영입 문제 논의

2월 3일과 4일 양일 간, 일본기독교단 (UCCJ)과 재일대한기독교교회 (KCCJ) 간의 선교사 영입 문제로 기독교대한감리회 (KMC),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PCK), 한국기독교장로회 (PROK)와 한일 5 교단 선교 실무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본 총회에서는 총회장 김성제목사, 선교위원장 정연원목사,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참석하였으며, 일본기독교단에서는 한국교회 협약위원장인 岸憲秀목사, 총무부 간사 道家一紀목사, 세계선교부 간사 加藤誠목사가 참석했다. 한국의 3 교단에서도 각각 2, 3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본 총회는 현재 시무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포함)가 88명인데, 그 중에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는 43명이므로 그 비중과 역할이 크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KCCJ의 재일동포 선교이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선교사도 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켜 교회와 총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기독교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무목교회가 10%를 넘는 현실로 인하여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와 타교단 출신 한국인 목사를 받아들이는 태세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다음 회의에서 계속 토의 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의 예상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지원방안 (주택, 생활비, 언어습득 훈련 등)
2. 좋은 선교사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3. 선교사의 현지 적응 (언어 및 문화 등)을 위한 인터넷도 활용 방안
4. 정기적으로 5 교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현지 선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 개최

다음 회의는 6월 7일 (화)-8일 (수), 동경에서 개최한다.

(보고: 편집부)

### 青年参加者募集

1. 内容: 台湾長老教会コース宣教センター主催 「I love Taiwan Mission 2016」
2. 目的: ①台湾のコースを取り巻く多文化・多宗教的な状況における宣教実践を学ぶことを通して、その教会理解や人間理解について知見を深める。  
②海外のコースと台湾のコースとのネットワークを強める。  
③台湾のコミュニティ宣教・伝道に参加することで、リーダーシップや教育のあり方について学ぶ。  
④ローカル教会におけるエキュメニカル運動への参与を促す。
3. 日時: 2016年6月29日(水)~7月16日(土) (18日間)
4. 申請期限: 2016年4月30日(土)
5. 言語: 台湾語・中国語と英語通訳有り。(多少会話ができること)
6. 応募資格: 18歳~35歳のコース。
7. 費用: ①宿泊費、現地交通費、プログラム費は、台湾長老教会が負担する。  
②往復航空料金は KCCJ から負担する。
8. 申請方法: 担任牧師の推薦を受けてから、総会に連絡すると審査して決定する。

### <福音新聞 休刊のお知らせ>

• 2016年4月号福音新聞は、休刊いたします。

<2016년 4월호 복음신문은 휴간합니다.>

### 總會奨学生 募集案内

總會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書類は總會ホームページ <http://kccj.jp/archives/2941> から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 募集人員: 5名
- 支給金額: 年額 200,000円/一人
- 支給期間: 1年間 (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 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總會神学校認定書 (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会長承認書
- 書類提出先: 總會事務局
- 締切日: 2016年6月30日必着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神学考試委員長